

## 놀이치료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유 미 숙            전 정 미\*            백 소 윤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사 98명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이 치료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 빈도와 백분율, 단계적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성향 (반항적-불신적, 독립적-책임적)보다 치료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더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성향(지배-우월, 경쟁-공격, 과시-도취 성향)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치료사가 치료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찰력을 지니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가치와 윤리 등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놀이치료,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성향, 치료관계

\* 교신저자 : 전정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 2동 반포푸르지오 APT 103-706  
Tel : 010-4703-1219, E-mail : healingmi@hanmail.net

놀이치료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치료관계이며(Gaston, 1990; Victor, Kronmüller, Horn, Reck, Hartmann, 1999), 아동심리치료에서 첫째 과업은 내담아동과 치료적 동맹을 맺는 것이다(김광웅, 1999). 특히, 아동의 언어 표현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서의 치료관계는 성인심리치료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Rusell & Shirk, 1998). O'Connor(1991)는 놀이치료는 훈련된 치료사가 심리적 문제를 지닌 내담자를 돕기 위해 놀이의 치료적 힘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치료사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놀이는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동과 치료사 간의 치료관계가 기초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가 높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놀이치료에서 치료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명선(2005) 또한 아동심리치료에서 치료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료관계를 아동과 치료자가 지각하는 것으로 나누어 아동이 지각하는 치료관계를 치료관계 행위의 주체로서 치료자와 치료 상황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치료사가 지각하는 치료관계는 치료관계 행위의 객체로서 아동과 부모의 치료관계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평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아동은 발달 연령상 객관적으로 치료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우며, 치료사가 놀이치료에서의 치료관계에 대해 많은 지식과 객관적인 정보들을 고려하여 인식하므로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가 좀 더 신뢰롭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

사가 인식한 치료관계만 사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치료적 관계에서 치료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치료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료사의 자질이 치료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Axline, 1969; Landreth, 1991; Moustakas, 1955; O'Connor, 1991; Schaefer & O'Connor, 1983). 또한 긍정적인 치료관계를 위해서 치료사는 전문적 자질인 놀이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유미숙, 임혜인(2006)은 이러한 전문적 자질 중 자기효능감을 중요 변인으로 뽑고 있다.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란 가까운 미래에 자기 자신이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는 판단으로 정의하고 있다(Friedlander, Keller, Peca-Baker, & Olk, 1986; Larson, Clark, Henderson, Koraleski, Daniels, & Smith, 1998; 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 & Toulouse, 1992). 이러한 치료사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치료사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습에 노력하고 도전하여 상담에서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상담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rson et al., 1998). Larson 등(1992)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수행수준, 문제해결 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황인호(2005) 또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상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 중 세부상담기술과 상담과정이 치료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지현, 2004;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3). 이는 내담 아동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치료 상황에서 대처기술능력을 배운 경험이 많은 숙련된 치료사들과 치료적 협력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세부상담기술에 대한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료자 지각으로부터 아동이 치료에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며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유능성, 문제해결 평가, 수행수준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유미숙, 임혜인, 2006; 최해림, 홍수현, 2001; Sipps, Sugden & Faiver, 1988; Ridgway, 1990; Larson et al. 1992).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으로부터 치료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치료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대인관계성향을 들 수 있다. 대인관계성향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심리적 지향성으로 여러 성격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되는 것으로(안범희, 1979), 놀이치료 장면에서 대인관계성향은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특히 놀이치료사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은 치료관계 중 긍정적, 부정적 감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유미숙, 임혜인, 2006). 또한 김경옥, 김광웅(2003)은 놀이치료사의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공감을 잘하며, 내담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가식이나 왜곡, 불신적인 태도가 아닌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Rogers, 1977). 신숙재, 이영미, 한정원(2000)은 치료사의 인격적 성숙을 제안한 놀이치료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위해 놀이치료사의 중요한 인간적 자질이라고 하였다(유미숙, 1997; Axline, 1969; Landreth, 1991; O'connor, 1991; Schaefer & O'connor, 1983). 이윤수(2001)는 세부상담 기술에 대한 유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사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

인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사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으며 불안을 잘 인식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역동을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미, 임혜인, 최명선, 유미숙(2006)은 놀이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유의미한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충기, 이재창(1989)에 의하면,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또는 기술을 의미하며, 인성적 자질은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과 같은 인간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대인관계성향은 자기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치료관계를 효과적으로 맺어주는 주요 요소이며, 이는 즉 놀이치료사의 대인관계성향이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형성되는 치료관계를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사의 전문적 자질인 자기효능감과 인간적 태도이자 특성인 대인관계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적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치료관계에 대한 중재접근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놀이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치료관계에 대해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2005년 9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45일간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놀이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의 아동상담소, 복지관 내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대학 부설 상담소

등에서 종사하는 놀이치료사로, 우선 각 기관의 관계자 및 놀이치료사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하였으며 일부는 놀이치료학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배부하여, 총 108개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10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무성의한 답변을 제외한 98부의 질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8\*

변인	구분	n(%)
연령	만 29세 이하	59(60.2)
	만 30세~39세 이하	34(34.7)
	만 40세 이상	5(5.1)
결혼	미혼	75(76.5)
	기혼	23(23.5)
학력	석사	68(69.4)
	박사과정	24(24.5)
	박사이상	6(6.1)
놀이치료 경력	1년 미만	33(33.7)
	1년 이상~5년 미만	47(50.0)
	5년 이상~10년 미만	9(11.0)
	10년 이상	5(5.3)
수퍼비전 경험	0(없다)	16(15.2)
	1~10회	13(13.1)
	11~50회	33(33.7)
	51~100회	24(24.5)
	101~300회	13(13.3)
치료관계 질문지에 응답한 내담아동과의 상담 단계	초기단계	18(18.4)
	중기단계	66(67.3)
	후기단계	14(14.3)

\* 중복응답에 따라 변이마다 사례수의 차이가 있음.

### 측정도구

#### 자기효능감 척도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지는 Larson과 동료들(1992)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국내의 홍수현(2001)이 번안한 것을 다시 이윤수(2001)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윤수(2001)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세부상담 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위 요인을 모두 합쳐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자기효능감이란 용어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기화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기능과 관련된 일련의 자기신념’이라고 Bandura(1993)는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 = .92$ 로 나타났다.

#### 대인관계성향 척도

놀이치료사의 대인관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 Leary(1957)의 대인관계 행동모형과 Krech(1962)등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고하여 안범희(1985)가 재구성한 성향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경쟁

적-공격적, 과시적-도취적, 반항적-불신적으로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 12문항씩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각각의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의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대인관계 성향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지배적-우월적 역할성향은 .61, 독립적-책임적 역할성향은 .62, 동정적-수용적 사회관계 성향은 .68, 사교적-우호적 사회관계성향은 .77, 경쟁적-공격적 표현성향은 .75,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은 .80,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6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인 중 신뢰도를 낮춰주는 문항인 독립적-책임적 역할성향의 72번 문항은 제외시켰다.

#### 치료관계 척도

놀이치료사의 치료관계는 치료사 자신이 지각한 것으로, 방은령과 최명선(2004)이 국외의 치료관계 척도(Kronmueller, et al. 2003; 2003 Shirk & Saiz, 1992)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치료적 협력관계,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의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치료관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치료적 협력관계가 .80, 긍정적 감정관계가 .70, 부정적 감정관계가 .5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측정도구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

변인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alpha$
	자기효능감	1~23	23	.92
대인관계 성향	지배적-우월적	1, 2, 15, 16, 29, 30, 43, 44, 57, 58, 71, 72	12	.61
	독립적-책임적	3, 4, 17, 18, 31, 32, 45, 46, 59, 60, 73, 74	12	.62
	동정적-수용적	5, 6, 19, 20, 33, 34, 47, 48, 61, 62, 75, 76	12	.68
	사교적-우호적	7, 8, 21, 22, 35, 36, 49, 50, 63, 64, 77, 78	12	.77
	경쟁적-공격적	9, 10, 23, 24, 37, 38, 51, 52, 65, 66, 79, 80	12	.75
	과시적-자기도취적	11, 12, 25, 26, 39, 40, 53, 54, 67, 68, 81, 82	12	.80
	반항적-불신적	13, 14, 27, 28, 41, 42, 55, 56, 69, 70, 83, 84	12	.68
치료자가 지각한 치료관계	치료적 협력관계	2, 4, 8, 11	4	.80
	긍정적 감정관계	1, 5, 7, 10	4	.70
	부정적 감정관계	6, 9, 12	3	.5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놀이치료사의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놀이치료사의 대인관계성향이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치료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수준을 상위 25%, 하위 25%로 분류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놀이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상대적 영향력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인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고,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관계의 하위요인인 치료적 협력관계, 긍정적 감정관계, 부정적 감정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관계에 대해, 각 하위요인이 예측하는 정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관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적 협력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전체 변량의 25%( $\beta$

결 과

표 3. 치료 관계에 대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성향의 단계적 회귀분석 (N=98)

종속변인	예측변인	B	$\beta$	Ad-R2	R2	F
치료적 협력관계	자기효능감	.12	.50***	.25	.25	32.44**
	대인관계7 반항적-불신적	-.08	-.31**	.09	.10	10.40**
긍정적 감정관계	대인관계2 독립적-책임적	.08	.27**	.15	.16	9.33***
	자기효능감	-.08	-.47***	.21	.22	27.25***

\* $p < .05$  \*\* $p < .01$  \*\*\* $p < .001$ 

=.50,  $p < .001$ )를 설명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부정적 감정관계’에 대하여 21%( $\beta = -.47$ ,  $p < .001$ )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성향 ‘반항적-불신적’이 긍정적 감정관계에 대하여 9%( $\beta = -.31$ ,  $p < .01$ ), ‘독립적-책임적’이 15%( $\beta = .27$ ,  $p < .01$ )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치료사의 대인관계성향 ‘반항적-불신적’, ‘독립적-책임적’보다 치료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치료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성향이 중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변인들을 위계적 회귀 분석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는 이 변인들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4-1, 표 4-2,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표 4-2, 표 4-3의 결과에서 주효과를 통제된 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된 후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 = -1.73$ ,  $p < .01$ ), 대인관계성향 경쟁적-공격적에 대한 중재효과도 유의한( $\beta = -2.00$ ,  $p < .01$ )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료사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 과시적-도취적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주 효과를 통제된 후 유의하게 나타나( $\beta = -2.79$ ,  $p < .01$ ) 대인관계 과시적-도취적 성향이 중재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치료사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 경쟁-공격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주 효과를 통제된 후 유의하게 나타나( $\beta = 1.90$ ,  $p < .05$ ) 대인관계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중재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대인관계성향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도취적의 구체적 역할을 확인

표 4-1. 치료적 협력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성향,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자기효능감	.51***	.16**
		대인관계 1 지배-우월	.05	1.4**
		효능감 × 대인관계1(지배-우월)		<b>-1.73**</b>
		$\Delta R^2$		.03
		$R^2$	.26	.29
		F	16.31***	12.57***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50***	-.12
		대인관계 2 독립-책임	.42	-4.8
		효능감 × 대인관계 2 (독립-책임)		8.1
		$\Delta R^2$		.01
		$R^2$	.25	.26
	F	16.20***	10.93***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51***	.63
		대인관계 3 동경-수용	-.04	.06
		효능감 × 대인관계 3 (동경-수용)		-.17
		$\Delta R^2$		0
		$R^2$	.25	.25
	F	16.16***	10.66***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52***	1.14*
		대인관계 4 사교-우호	-.05	.70
		효능감 × 대인관계 4 (사교-우호)		-1.11
		$\Delta R^2$		.02
		$R^2$	.25	.27
	F	16.21***	11.35***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51***	1.57***
		대인관계 5 경쟁-공격	.12	1.86**
		효능감 × 대인관계 5 (경쟁-공격)		<b>-2.00**</b>
		$\Delta R^2$		.05
		$R^2$	.27	.32
	F	17.26***	14.96***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49***	.75
		대인관계 6 과시-도취	-.07	.26
		효능감 × 대인관계 6 (과시-도취)		-.39
		$\Delta R^2$		0
		$R^2$	.26	.26
	F	16.42***	10.96***	
치료관계 1 치료적협력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자기효능감	.51***	1.56**
		대인관계 7 반항-불신	.01	1.58
		효능감 × 대인관계 7 (반항-불신)		-1.66
		$\Delta R^2$		.03
		$R^2$	.25	.28
	F	16.07***	12.10***	

\* $p < .05$  \*\* $p < .01$  \*\*\* $p < .001$



표 4-2. 긍정적 감정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성향,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8	1.31*
		대인관계1 지배-우월	-.03	1.48
		효능감 × 대인관계1(지배-우월)		-1.91
		$\Delta R^2$		.04
		$R^2$	.01	.05
		F	.37	1.48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8	1.71
		대인관계2 독립-책임	.14	1.51
		효능감 × 대인관계2 (독립-책임)		-2.13
		$\Delta R^2$		.01
		$R^2$	.02	.03
		F	1.35	10.93***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1	.30
		대인관계3 동정-수용	-.04	.19
		효능감 × 대인관계3 (동정-수용)		-.32
		$\Delta R^2$		0
		$R^2$	.01	.01
		F	.33	.23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8	-.32
		대인관계4 사교-우호	.01	-.47
		효능감 × 대인관계4 (사교-우호)		.72
		$\Delta R^2$		0
		$R^2$	.01	.01
		F	.33	.37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8	.73
		대인관계5 경쟁-공격	-.09	.98
		효능감 × 대인관계5 (경쟁-공격)		-1.23
		$\Delta R^2$		.03
		$R^2$	.01	.04
		F	.68	1.15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7	1.94**
		대인관계6 과시-도취	-.10	2.25**
		효능감 × 대인관계6 (과시-도취)		<b>-2.79**</b>
		$\Delta R^2$		1.0
		$R^2$	.02	1.2
		F	.81	4.30***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2 긍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01	1.20
		대인관계7 반항-불신	-.31**	1.47
		효능감 × 대인관계7 (반항-불신)		-1.90
		$\Delta R^2$		.03
		$R^2$	.10	.13
		F	5.15**	4.74**

\* $p < .05$  \*\* $p < .01$  \*\*\* $p < .001$

표 4-3. 부정적 감정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성향,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6***	-1.53**
		대인관계1 지배-우월	.13	-1.17
		효능감 × 대인관계1(지배-우월)		1.65
		$\Delta R^2$		.03
		$R^2$	.24	.27
		F	14.79***	11.32***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7***	-.54
		대인관계2 독립-책임	.08	.01
		효능감 × 대인관계2 (독립-책임)		.10
		$\Delta R^2$		0
		$R^2$	.23	.23
		F	13.93***	9.19***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7	.16
		대인관계3 동정-수용	-.01	.53
		효능감 × 대인관계3 (동정-수용)		-.92
		$\Delta R^2$		0
		$R^2$	.22	.22
		F	13.50	9.05***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2***	-1.02
		대인관계4 사교-우호	-.15	-.86
		효능감 × 대인관계4 (사교-우호)		1.06
		$\Delta R^2$		.01
		$R^2$	.24	.25
		F	15.18***	10.59***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7***	-1.48***
		대인관계5 경쟁-공격	.01	-1.64*
		효능감 × 대인관계5 (경쟁-공격)		<b>1.90*</b>
		$\Delta R^2$		.05
		$R^2$	.22	.27
		F	13.50***	11.74***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6***	-.30
		대인관계6 과시-도취	.07	.26
		효능감 × 대인관계6 (과시-도취)		-.23
		$\Delta R^2$		0
		$R^2$	.23	.23
		F	13.82***	9.16***
		독립변인	1단계 $\beta$	2단계 $\beta$
치료관계3 부정적 감정		자기효능감	-.47***	-1.02
		대인관계7 반항-불신	.01	-.81
		효능감 × 대인관계7 (반항-불신)		.87
		$\Delta R^2$		.01
		$R^2$	.22	.23
		F	13.50***	9.27***

\* $p < .05$  \*\* $p < .01$  \*\*\* $p < .001$

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그림 1을 살펴보면 효능감이 높고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지배적-우월적 성향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효능감이 높은 경우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

면, 효능감이 낮은 경우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료사의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의 구체적 중재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의 결과는 효능감이 높고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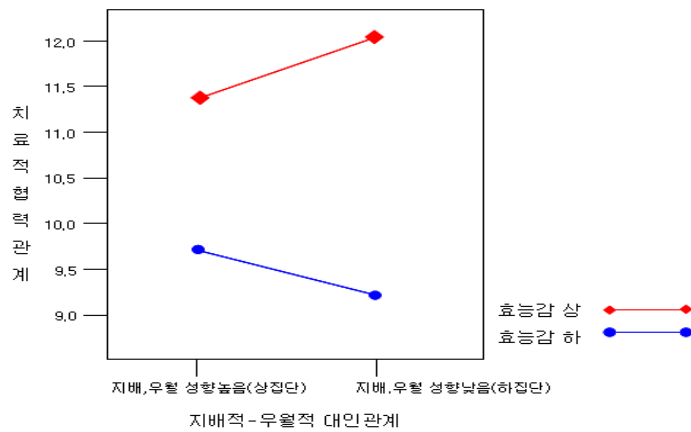


그림 1.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지배적-우월적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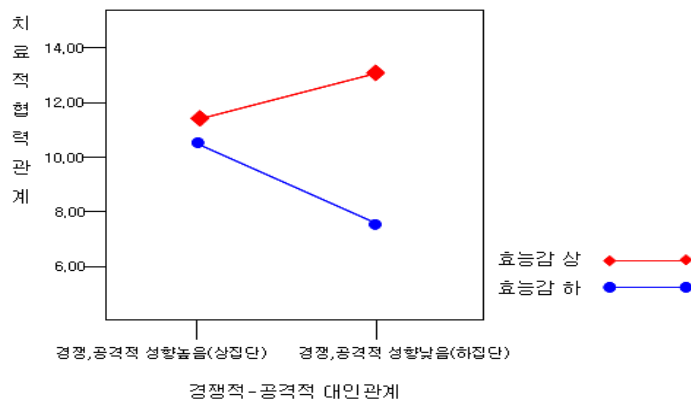


그림 2.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적 협력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경쟁적-공격적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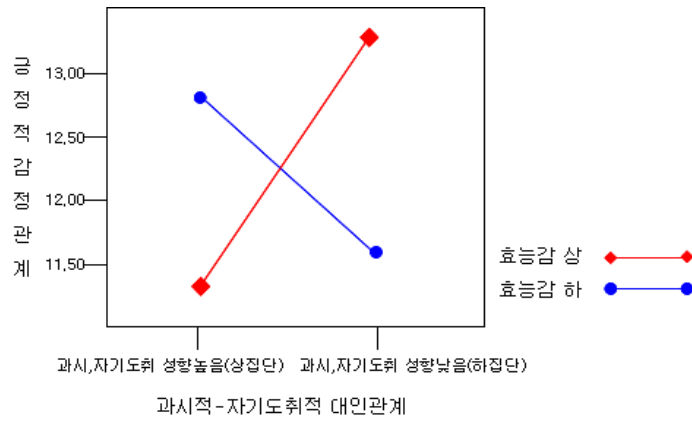


그림 3. 치료사가 지각한 긍정적 감정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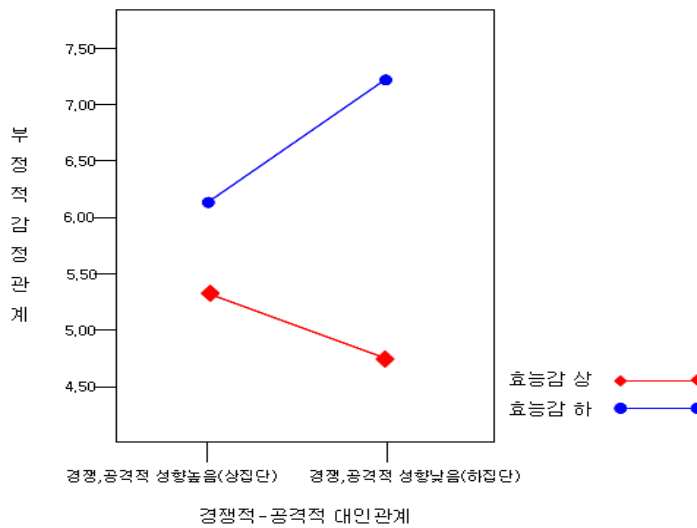


그림 4. 치료사가 지각한 부정적 감정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경쟁적-공격적 성향의 상호작용효과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효능감이 높은 경우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효능감이 낮은 경우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의 구체적 증재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효능감이 높고 낮은 경

우에 따라 긍정적 치료관계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효능감이 높은 경우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줄어들고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약해지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능감이 낮은 경우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면 반대로 긍정적 감정관계가 늘어나고 과시적-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약하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줄어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감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하는 중재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의 결과는 효능감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부정적 감정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효능감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부정적 감정관계가 많이 줄어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감정관계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의 구체적인 중재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치료사를 대상으로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인관계성향을 조절함으로써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관계에 대한 중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으로 인해 유발되는 치료사의 치료관계에 대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중재 요인을 밝히고, 치료사의 대인관계성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치료적 협력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부정적 감정관계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끝으로, 대인관계성향 중 반항적-불신적, 독립적-책임적 성향이 긍정적 감정관계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치료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상담기술을 습득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Larson et al., 1998) 선행연구, 그리고 상담경험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와의 협력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한 연구(강혜영, 1995, 홍수현, 최해림, 2001; 유미숙, 임혜인, 2006), 상담자의 경력이 치료적 동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김남희, 1995; 조영주, 1998; Bordin, 1980)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상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황인호(2005)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사는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아 자신의 불안을 잘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역동을 잘 개념화한다는 이윤수(2001)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항적-불신적, 독립적-책임적 성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효과적인 치료관계를 위해서 치료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Axline, 1969; Landreth, 1991; O'connor, 1991; Schaefer & O'connor, 1983)하며 신뢰로운 대인관계(윤정설, 2001)와 수퍼비전, 특별한 훈련 등의 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유미숙, 최명선, 2002)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많은 상담경험, 꾸준한 수퍼비전 참가로 사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이해하고 여러 상담상황을 경험한 치료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조도현, 윤호균(1998)의 연구와 간접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놀이 치료사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위해서 많은 상담경험과 워크숍 참여 등의 노력과 함께 인격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놀이치료사의 자기효능감에 따른 치료사가 지각한 치료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사의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능감이 높은 경우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효능감이 낮은 경우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 성향이 낮을 때 치료적 협력관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의 경력이 낮은 경우 상담자 자신이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한다는 최해림, 홍수현(2001)의 연구, 그리고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낮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으며, 내담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경옥, 김광웅, 2003, 유미숙, 임혜인, 2006)와 간접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보다 우월하다하는 인식하에 평등하지 못한 관계를 맺어 치료적 협력관계 부정적으로 되며,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사는 오히려 내담자와 평등한 관계로 내담 아동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여 긍정적인 치료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의 중재효과가 나타났는데, 즉 효능감이 높고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의 수준에 따라 치료적 협력관계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은 집단이 불안관리를 잘 한다는 김경옥, 김광웅(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은 치료사일수록 불안관리를 잘해서 치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감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다르게 작용하는 중재효과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경우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줄어들고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약해지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효능감이 낮은 경우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강하면 반대로 긍정적 감정관계가 늘어나고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 성향이 약하면 긍정적 감정관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성향에서 과시적이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인성적인 면을 갖춘 치료사가 긍정적 감정관계를 잘 이

끌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치료사의 경우 좀 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도취적인 치료사가 긍정적 감정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과시적-도취적 성향도 자기효능감에 따라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인관계성향 중 과시적-도취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역적인 관리 능력의 하나인 자기통찰이 높다는 김경옥(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 자기통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한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기효능감과 과시적-도취적 성향의 정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시적-도취적일수록 직업적 회의가 낮다는 연구결과(전정미, 임혜인, 최명선, 유미숙, 200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과시적-도취적인 치료사의 자신감이 직업적 회의를 덜 느끼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겠다. 끝으로,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은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부정적 감정관계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치료사의 경쟁적-공격적 대인관계 성향의 중재효과를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낮은 집단 보다 부정적 감정관계가 현저히 적었으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부정적 감정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효능감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의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부정적 감정관계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을수록 치료적 협력관계가 높

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낮은 집단이 불안관리를 잘 한다는 김경옥, 김광웅(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부정적 감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치료경력과 기술이 풍부하여 부정적 감정관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경쟁-공격적 성향이 낮을수록 부정적 감정관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자기효능감에 따른 치료관계에서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이 중재효과를 나타내, 놀이치료사의 치료관계는 전문적 자질인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인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달라져 상담이라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또는 기술뿐만 아니라, 치료사의 품성, 인간관계 등 인간적인 면 또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따른 치료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놀이치료의 치료관계에서 치료사의 심리내적, 대인외적 변인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알아봄으로써, 치료관계를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사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놀이치료사는 치료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찰력을 지니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가치와 윤리 등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사 98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놀이치료 장면에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후속연구에서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각 척도에서 .62 이하의 신뢰도가 나온 하위변인(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부정적 감정관계)들이 있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뢰로운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치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이라는 개인내적 변인과 대인의적 변인을 선택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완벽주의 성향, 내담아동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전문적 경험, 윤리적 의식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본다면 아동상담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인 치료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치료관계에 있어 놀이치료사의 전문적 자질인 자기효능감과 인성적 자질인 대인관계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치료사의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의 발달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4), 1005-1021.
- 강하영, 김광웅 (2003). 놀이치료자가 지각한 치료적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아동 변인 연구. 놀이치료연구, 5(2), 15-26.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옥, 김광웅 (2003). 놀이치료자의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 연구, 6(2), 3-13.
- 김광웅 (1999). 아동놀이의 속성과 치료적 요소에 관한 고찰. 놀이치료연구, 2(1), 49-57.
- 김남희 (1995). 상담 초기에 있어서 상담자의 경험수준과 치료적 작업동맹 형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충기, 이재창 (1989).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교육과학사.
- 노안영 (2002). 101가지 주제로 알아보는 상담심리. 서울: 학지사.
- 박지현 (2004). 놀이치료자의 아동기경험과 전문적 경험이 치료자의 치료적 동맹과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은령, 최명선 (2004). 아동과 치료자간의 치료관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01-121.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신교숙, 김광웅 (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57-69.
- 신숙재, 이영미, 한정원 (2000). 아동중심 놀이치료: 아동상담. 서울: 동서문화원.
- 신희천 (2001). 내담자의 핵심적 갈등관계에 대한



- 해석과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범희 (1979). 대인관계이론고찰. 원우논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63-85.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미숙 (1997).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상조사.
- 유미숙, 임혜인 (2006).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19-337.
- 유미숙, 최명선 (2002). 놀이치료-아동중심적 접근. 서울: 상조사.
- 윤정설 (2001). 상담자의 성격 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수 (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호, 신희천 (1998).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상호작용 패턴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63-81.
- 전정미, 임혜인, 최명선, 유미숙 (2006).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심리적 소진(Burn-out)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2), 17-26.
- 조도현, 윤호균 (1998). 상담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특징들. 사회과학연구, 14, 29-55.
- 조영주 (1998). 내담자의 초기애착과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 (2005). 놀이치료의 치료관계와 치료성과.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선, 김광웅, 한현주 (2005). 치료자의 전문적 경험과 공감능력이 내담아동이 지각한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03-521.
- 최선미 (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해림, 홍수현 (2001).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31-49.
- 한현주, 김광웅 (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 아동이 지각한 치료자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놀이치료연구, 7(2), 77-89.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Axline, V. (1969). *Play therapy*. Boston: Houghton-Mifflin.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ordin, E. S. (1980). The generali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16, 256-260.
- Friedlander, M, L., Keller, K. E., Peca-Baker, T. A., & Olk, M. E. (1986). Effects of role conflict on counselor trainees' self-estimate, anxiety level, and performance.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Gaston, L. (1990). The concept of the alliance and its role in psychotherap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Psychotherapeut*, 27, 143-153.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Krech, D., et a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 Kronmueller, K. T., Hartmann, M.Reck, C., Victor, D., Horn, H., & Winkelmann, K. (2003).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in der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therapie: Evaluation einer deutschen Version der Therapeutic Alliance Scales for Children. *Zeitschrift für Klinische Psychologie,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32(1), 14-23.
- Larson, L. M., Clark, M. P., Henderson, L. A., Koraleski, S. F., Daniels, J. A., & Smith, P. (1998). *Choosing grief videos versus plays for increasing counseling self-efficacy in prepraction trainees: Balancing risk potency*. Manuscript submitted publication.
- Larson, L. M., P., Henderson, L. A., Koraleski, S. F., Daniels, J. A., & Smith, P. L. (1998). *Choosing grief videos versus plays for increasing counseling self-efficacy in prepraction trainees: Balancing risk and potency*. Manuscript submitted publication.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05-120.
- Landreth, G. L. (1991).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 Bristol: PA.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3).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Moustakas, C. E., & Schalock, H. D. (1955). An analysis of therapist child interaction in play therapy. *Child Development*, 26, 143-157.
- O'conner, K. (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se and Thechniques*. John Wile & Sons, Inc.
- Ridgway, I. R. & Sharpley, C. F. (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4, 65-177.
- Rogers, C. (1977). *Carl Rogers on personal power: Inner strength and its revolutionary impact*. New York: Delacorte Press.
- Rusell, R. L & Shirk, S. R. (1998). Child psychotherapie process research.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93-124.
- Schaefer, C. & O'conner, K. (1983). *Handbook of play therapy*. New York: Wiley.
- Shirk, S. R., & Saiz, C. C. (1992). Clinical, empi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hild Psychotherap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713-728.
- Sipps, G. J., Sugden, G. J., & Faiver, C. M. (1988).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verbal response type: Their relationship to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7-401.

Victor, D., Kronmüller, K. T., Horn, H., Reck, C., & Hartmann, M. (1999).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und Kooperation in der analytischen Kinder Jugendichenpsychotherapie. In: G. Krampen, H. Zayer, W. Schönplflug & G. Richardt (Hrsg.). *Beiträge zur Angewandten Psychologie*. Bonn: Deutscher Psychologen Verlag.

원 고 접 수 일 : 2008. 6. 2

수정원고접수일 : 2008. 8. 1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The Effects of Play Therapist's  
Self-Efficacy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

**Mee Sook Yoo**

**Jung Mi Jun**

**So yoon Bae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ich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therapist's self-efficacy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exercise collected relevant data by surveying ninety-eight play therapists. The data which was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12.0 and this was followed by Cronbach  $\alpha$  Factor analysi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therapist's self-efficacy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than the resistant-distrustful and independent-responsibility of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Secondly, the play therapis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cause and effect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for play therapists to development stronger therapeutic relationships understanding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 and using this understanding to develop insight and to foster quality and professionalism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skills, qualities values and ethics as a therapist are necessary.

*Key words: play therapy,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s, therapeutic relationship*